

↑ 코스피 2501.53 (+5.72)	↓ 코스닥 842.83 (-7.38)
↑ 금리 (미국 9년) 3.293 (+0.005)	↓ 환율 (원-달러) 1337.70 (-0.30)



재고의 벽 넘나... 반도체, 감산 따른 업황 반등 '청신호'

삼성·SK, DS부문 최악 실적에도
2분기부터 재고 정상회복 기대감
증권가도 하반기 D램 초과공급을 ↓

업계 감산따른 공급과잉 해소 예상
최첨단 양산 준비, 투자재개 움직임

반도체 업계가 저조한 실적 속에서도
시장 반등이 임박했음에 뜻을 같이 했
다. '업턴'을 향한 긍정적인 신호도 이어
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
이닉스는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
부터 업턴 가능성이 높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2분기부터는 재고가 감소할 것이
라고도 입을 모았다.

1분기 영업 손실은 삼성전자 DS부문
과 SK하이닉스가 각각 4조5800억원, 3
조4023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보다도
적자폭이 훨씬 컸다.

그럼에도 양사가 시장 회복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이유는 공급 과잉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분기 관
련 업계가 과다한 재고 조정을 한 탓에 다
시 수요를 늘려야 하는 상황, 메모리 업
계가 다함께 감산을 단행하면서 시장 분
위기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SK증권에 따르면 트렌드포스도 지난
달 하반기 D램 초과공급을 하향 조정
했다. 하반기 D램 재고 하락 속도가 예상
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마이
크론과 SK하이닉스가 적지 않은 감산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도 '의미 있는' 수
준 감산을 약속하기도 했다.

인텔이 본격적으로 양산할 차세대 CP
U에도 반도체 업계 기대가 크다. 2분기
부터는 새로운 D램 규격인 DDR5를 지
원하는 사파이어레이크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차세대

CPU인 메테오레이크 양산까지 준비됐
다고 밝힌 것.

최악의 실적을 발표한 인텔도 2분기부
터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
지 않았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실
적을 발표하면서 팻 겔싱어 CEO 등 경
영진들은 1분기 큰폭의 재고 조정으로 2
분기부터는 차차 재고가 정상 수준을 회
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이 117억달
러에 순이익도 2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
지만, 시장 전망치보다는 훨씬 양호하
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가도 큰폭으로 올
랐다.

메모리 주요 수요처인 서버 업계도 경
기 침체에 따른 역성장 전망을 완전히 뒤
집고 크게 개선된 실적을 발표했다. 그동
안 줄라뻤던 허리띠를 풀고 투자를 재개
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얘기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업계 1위인 아
마존 AWS 사업부는 15.8%, 2위인 마이
크로소프트 지능형클라우드 부문이
16.3% 늘었다. 구글은 클라우드 부문에
서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하며 사업 가능
성을 확인했다.

특히 서버 업계는 인공지능(AI) 서비
스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는 분위기다.
챗GPT에 투자하고 검색엔진에 도입하
는 등 AI 역량을 확대한 MS와 이를 따라
가려는 구글이 이익률을 계속 늘려가고
주가도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주춤하
는 평가를 받은 아마존은 이익도 주가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컨
퍼런스콜을 통해 하반기부터 AI서버를
위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H
BM3를 엔비디아 등에 공급 중, 삼성전
자도 다양한 고성능 메모리를 준비하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컨테이너 만큼 쌓여가는 무역적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14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졌
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
여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스1

'모바일 뱅크런'에 또 무너진 美 은행

퍼스트리퍼블릭銀 매각 절차
SVB 등 파산 이어 올 4번째

최근 한달동안 고객 예금이 130조
원 이상 빠져나간 미국의 퍼스트리퍼
블릭 은행이 붕괴 수순을 밟게 됐다.
3월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은행(SV
B), 시그니처은행 파산 이후 4번째다.

이들 은행의 파산은 사회관계망서
비스(SNS)를 통해 공포심리가 확대
되며 모바일 뱅크런(대규모 인출사
태)이 발생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다시 불거진 은행발 금융불안 사태를
두고, 차액결제 담보비율 상향 등 금
융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메꿔야 한다
는 지적이 나온다.

◆ 또 다른 변수 SNS→모바일 뱅크
런

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는 퍼스트리퍼
블릭은행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
단해 지난달 30일을 임찰마감일로 정
하고 매각 인수자를 물색했다. FDIC
가 입찰의사를 물은 곳은 JP모건, 뱅
크 오브 아메리카, PNC파이낸셜그룹,
US뱅크 등으로 JP모건과 PNC가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다만 입찰을
통한 매각이 불발될 경우 FDIC는 파
산재인을 맡아 예금과 자산을 인수
해 관리해야 한다.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갑작스레
파산, 매각 수순을 밟고 있는 이유는

SNS를 통한 뱅크런을 막지 못했기 때
문이다. SNS로 위기소식이 알려진 뒤
36시간 만에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
과 같은 수순을 밟은 셈이다.

지난 3월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
브아메리카 등 11개은행은 실리콘밸
리은행 파산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 긴급
자금 300억달러(약 40조원)를 예치했
다. 연방준비은행(FRB)도 1000억달
러(약 134조원)를 긴급 대여한다고 발
표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전례 없는 인출
행렬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8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민방문 성과를 환영하며 자유와 미래번영을 향한 韓美동맹 강화를 지지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등 공동의 핵심 가치를 토대로 진화하는 한미 동맹 강화는
양국간 경제 협력 및 동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경제와 기술동맹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경제계는 한미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